



# 해외자본의 중국보험시장 점유율 20% 초과

왕양비 연구원

■ 12월 9일 베이징에서 열린 ‘WTO가입 10년, 중국보험산업 대외개방 포럼’에서 중국 보험 및 사회보장 연구센터(北京大学中国保险与社会保障研究中心)는 해외자본의 중국보험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다는 일반적 관점과 달리 2010년 기준 동 점유율은 20%를 초과한다고 발표함.

-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공식적 수치에 따르면, 과거 10년 간 외자계 보험회사 수는 16개사에서 45개사로 증가했으나,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40%(회사 수 기준)를 차지하는 25개 외자계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5% 이하,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36%(회사 수 기준)를 차지하는 20개 외자계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%에 그침.
- 반면, 중국 보험 및 사회보장 연구센터는 중국진출 외자계 보험회사, 중·외 합작보험회사, 중국 보험회사의 해외자본 지분비율을 모두 감안하면 해외자본의 2010년 기준 중국보험시장 점유율은 22.1%에 달한다고 주장함.
- 이 중 해외자본의 손해보험시장 점유율은 20.5%, 생명보험시장 점유율은 22.7%로 조사됨.

■ 동 연구센터는 해외자본의 중국보험시장 장기실적 개선과 중국 보험시장의 추가적 개방을 위해 향후 10년 간 3단계에 걸친 보험산업 대외개방 전략을 제시함.

- 2011~2013년 동안 중·외 합작 생명보험회사 지분비율에 대해 조사 및 연구하며, 외자계 손해보험 회사에 자동차책임보험시장 진입을 허용함.
- 2014~2017년에 중·외 합작 생명보험회사 중 일부 회사를 선정하여 동 회사 외자주주의 지분소유 상한을 현재 적용 중인 50%에서 70%로 상향조정하는 한편, 외자계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자동차 책임보험시장 진입 및 퇴출 기준을 제정함.
- 2018~2021년 중 합작 생명보험회사의 지분소유 제한을 완전 해제하고, 동시에 중국 보험회사와 외자계 보험회사의 시장진입에 대한 차별대우도 철폐하면서 동일한 감독 및 규제 표준을 적용함.

(재산망, WSJ, 인민은행, 12/09 등)